산업통상부 보도참고자료 APEC 2025 KOREA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 10. 2.(목)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해 정부, 금융권, 산업계 만났다.

- 10.2일, 정부·업계·금융권이 참여하는 「석화산업 사업재편 금융지원 설명회」 개최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이하 금융위)는 10.2(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 업계의 요청에 따라,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금융지원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동 설명회는 금융권이 지난 9.30(수) **「산업 구조혁신 지원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석유화학업계의 사업재편을 위한 **금융지원의 틀을 마련**함에 따라, 산업부, 금융위 및 금융권, 산업계 등이 참석하였으며, **협약의 세부내용 및 향후 지원절차 등을 상세히 논의**하였다.

* 참석자 : 은행연합회, 산업은행, 화학산업협회, 주요 석유화학기업 14개사

향후 금융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구체적인 사업재편계획 및 자구노력을 포함하여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금융지원을 신청할 경우,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에 채권을 보유한 채권은행을 대상으로 자율협의회를 소집하여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후 외부 공동실사를 통해 사업재편계획과 자구노력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사업재편계획을 기업활력법에 따라 산업부에서 승인받고, 자율협의회와 사업재편계획, 금융지원방안 등이 포함된 구조혁신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재편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이 경우 현재 금융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만기연장, 이자유예, 이자율 조정, 추가 담보취득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필요시 신규자금 지원도 가능하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석유화학 업계도 자율협약 체결 이후 사업재편 논의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도 기업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원 패키지 마련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이 타당한 사업재편계획안을 마련한다면 **금융기관의 생산적 금융을 통해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금융위는 “공동협약은 신청이 이루어져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조기에 구체적 사업재편안을 만들어 주채권 은행에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산업부·금융위 등 포함하여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산단별·기업별 **「사업재편 민관협의체」**를 통해 기업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패키지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석화산업 구조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화학산업팀	책임자	팀장	김건혁 (044-203-4930)
		담당자	사무관	박충희 (044-203-4932)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책임자	과장	양윤영 (02-2100-2920)
		담당자	사무관	박보라 (02-2100-292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PEC 2025 KOREA 10.27.~11.1. 경주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